

현대 한국 한자음 聲母의 한어 어음변천사에서의 위치 探析*

- 한어 어음변천사를 중심으로 -

李 春 永**

<目 次>

I. 들어가는 말	III. 현대 한국 漢字音의 특징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IV. 결 론

I. 들어가는 말

고대 한국의 주요 표기수단이었던 漢字는 形·音·意에 있어 한국의 독자적인 발전과 변천을 거치며 현대 한자음에 이르렀다. 정치·사회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국땅 한국에서 토착어의 영향을 받으며 변천한 한자음은 중국 방언과는 다른 의미에서 어음변천 상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또한 양국의 역사적 교류를 배경으로 漢語 어음 변천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18세기 조선에서는 한국 한자의 전통음과 중국음을 토대로 《華東正音通釋韻考》·《三韻聲彙》·《奎章全韻》 등 많은 운서를 편찬하였고, 이에 따른 한자음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의도적인 정책적 개입도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 한자음은 중국의 古音 및 어음변천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한국 고유 언어 및 정책적인 한자음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32-A00108).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部 助教授.

정리 등을 배경으로 오늘날의 독음이 형성되었다. 성운학계에서는 한국 한자음 자료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한국 한자음 연구에 있어서도 漢語의 어음변천 분석방법이 도입되어져 왔다.

중국 성운학계에서 방언 및 한자권 외국어는 자국 언어 연구의 중요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방언과 한자권 외국어에 담겨있는 한어 어음의 정보를 분석하여 漢語의 어음 변천내용을 규명하는 것은 주요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이다. 중국방언의 어음체계 분석 및 중국 방언·한자권 외국어와의 비교·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자료를 근거로 한 중국 고음 연구 및 추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袁家驊 등의 《漢語方言概要》¹⁾·北京大學 中國語言文學系 語言學教研室 편찬의 《漢語方音字彙》²⁾와 《漢語方言詞彙》³⁾·張啓煥·陳天福·程儀의 《河南方言研究》⁴⁾·楊時逢의 <南昌音系>⁵⁾·龔煌城的 <從漢藏語的比較看重紐問題>⁶⁾·平山久雄의 <重紐問題在日本>⁷⁾·詹梅伶의 <廣西平南閩語之聲母保存上古音之痕迹?>⁸⁾ 등이 있다. 특히, 현대 한국 한자음은 入聲 韻尾의 보유·권설음 미발생·개별 한자음의 고음 발음 보유 등 많은 중국 古音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한자음은 현대 중국 성운학계에 있어 한어의 고음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高本漢(B.Karlgren)은 《中國音韻學》 등의 저서에서 한어 中古音을 추측함에 있어 한국 한자음을 중요한 자료로 삼았다. 周及徐는 <一些韓國語漢字詞與漢語古音的對應>⁹⁾에

- 1) 袁家驊 등, 《漢語方言概要》(語文出版社, 2006.4).
- 2)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 編, 《漢語方音字彙》(語文出版社, 2003.6).
- 3)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 編, 《漢語方音詞彙》(語文出版社, 2005.1).
- 4) 張啓煥·陳天福·程儀, 《河南方言研究》(河南大學出版社, 1993.1).
- 5) 楊時逢, <南昌音系>(《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三十九本, 中央研究院, 1969.1), 125-204.
- 6) 龔煌城, <從漢藏語的比較看重紐問題>(《聲韻論叢》第1輯, 臺灣學生書局, 1994.5), 73-96.
- 7) 平山久雄, <重紐問題在日本>(《聲韻論叢》第6輯, 臺灣學生書局, 2008.4), 5-35.
- 8) 詹梅伶, <廣西平南閩語之聲母保存上古音之痕迹?>(《聲韻論叢》第5輯, 臺灣學生書局, 1996.9), 359-407.

서 한국어와 중고 한어 및 상고 한어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여 한국어에 나타나 있는 상고 한어 성분을 분석하였고, 吳世峻의 <從朝鮮漢字音看一二等重韻問題>¹⁰⁾에서는 한국 한자음 자료를 이용하여 1등운과 2등운의 音值를 분석하였다. 또한, 漢語의 어음변천 내용이 한국 한자음에 끼친 영향에 주목하여, 漢語의 어음변천 규칙을 도입하여 한국의 한자음을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만인 楊人從이 한국에서 유학하던 당시 박사논문으로 쓴 <한국한자음과 중국북방음의 비교연구>이다. 楊人從은 논문에서 한국어 발음으로 중국음을 표기한 조선의 운서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국 한자음과 중국 북방음의 변화·발전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엄익상 교수는 《한국한자음 중국식으로 보기》¹¹⁾라는 책에서 중국어 언어학의 관점에서 백제에서 현대까지의 한국 한자음을 연구하고 있다.

현대 한국 한자음을 《廣韻》41聲類로 분석하였을 때, 각 聲類 어음군의 한국 어음 반영내용에는 일정한 체계성이 보여 지고 있다. 이 특징을 시작점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중국과 같은 한자권인 한국에 유입된 한자음이 현대에 이르러 한어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 한국 한자음에 보유하고 있는 한어 고음 정보와 유사성 및 차이점을 분석하여 한국만의 독특한 어음특징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토대로 한국 한자음의 한어 어음변천사에서의 위치를 고찰할 수 있으며, 이후 성운학 및 한국 어음 연구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9) 周及徐, <一些韓國語漢字詞與漢語古音的對應>(東亞人文學會第10屆國際學術大會, 2009년 12월 18일 발표논문).

10) 吳世峻, <從朝鮮漢字音看一二等重韻問題>(《聲韻論叢》第四輯, 臺灣學生書局, 1992.5).

11) 엄익상, 《한국한자음 중국식으로 보기》(한국문화사, 2008.8).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民衆書林 《漢韓大字典》(제3판)에 수록된 21,000자 상용한자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漢韓大字典》에서는 현대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漢字의 각 의미에 해당하는 어음과 反切을 수록하고 있다. 《漢韓大字典》에서는 주요 참고자료로 우리나라의 신자전(新字典)과 중국의 《강희자전(康熙字典)》과 《사해(辭海)》 등을 언급하고 있다. 어음의 참고자료가 중국의 近·現代의 것이기 때문에 《漢韓大字典》의 反切을 근거로 聲母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漢字音과 漢語音의 비교·분석 진행을 위해서 먼저 분석 대상 선별 과정을 거쳐 오차를 줄이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廣韻》의 한자음 수록한계와 한어의 어음변천 및 《漢韓大字典》 反切의 시대적 배경 및 착오 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漢韓大字典》의 反切이 《廣韻》反切과 일치하거나 같은 어음계통¹²⁾인 ‘反切—讀音’ 자료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별하여 《廣韻》41聲類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중국 한어의 어음변천 내용과 현대 한국 한자음에는 드러나지 않은 옛 한국어 어음체계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양국이 한자를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국어의 자음 체계에 없는 한어 音值는 유사음으로 반영된 경우도 있고(예를 들면, 고한어 어음체계에서는 有氣音이 형성되지 않았다), 한자의 유입 당시 반영된 한국어 자음이 현대에 이르러 사라지고 다른 음으로 반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면, 日母자를 반영했던 ‘△’자음은 현대 한국 어음에서 사라졌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양국의 어음변천을 연구의 배경으로 삼고, 한어 어음변천 내용을 기본 관점으로 하여 현대 한국 한자음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성모는 41聲類의 분류가 일치하고, 운모는 한어 어음변천상 연관이 있는 것을 포함시킨다.

분석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대 한국 상용한자를 《廣韻》 41聲類로 분석하고, 각 聲母의 글자들이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는 한어와 차이 나는 현대 한국 한자음만의 고유한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어 어음변천 내용과의 차이 나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즉, 한어 어음변천과 구분되는 현대 한국 한자음만의 독특한 併合 및 分化 내용을 정리하고,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어의 고음 정보를 분석해 낸다. 또한 이를 토대로 현대 한국 한자음의 어음내용이 한어어음변천사에서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III. 현대 한국 漢字音의 특징

한어 聲母의 演化¹³⁾관점에서 본 한국 자음의 대응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1. 《廣韻》精·淸·從과 見·溪·群의 不合併

《廣韻》精·淸·從·見·溪·群母 글자들은 현대 한어에서 병합과 분화를 거쳐 성모 [j]·[q]·[g]·[k]·[z]·[c]¹⁴⁾음으로 발음된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13) 본고의 한어 성모의 유래는 竺家寧의 《古音學入門》(臺灣學生書局, 1989.7)과 王力的 《漢語語音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5)를 근거로 한다.

14) 본고의 古音を 표기한 국제음성기호는 그대로 표기하고, 도표 이외의 한어병음은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現代 漢語拼音	《廣韻》		開合洪細 ¹⁵⁾	韓國 子音
	41聲類	例		
j	見	記久兼京佼俱倨僵佳嘉劍勁...		ㄱ
	溪	刮綱綦穎諮慮...		ㄱ
	精	借勑薦嗟趨醜鑣鐵剝焦...	開口細音	ㄷ
		且箒箒箭縉翳萋磨跡接剪...	開口細音	ㄷ
		僑足鏃鐫餽峻...	合口細音	
	群	件倔倦傑儉具紵及菌崎矩絀...		ㄱ
	從(仄)	藉穢齋藉阻咀阱靚靜餞匠集...	開口細音	ㄷ
俊倓銜賤躑就楮洴堵寔...		開口細音	ㄷ	
g	見	刮告乾公串古供各光綱竇覘...		ㄱ
	群	共跪櫃舉...		ㄱ
k	溪	侃哭克凱可孔刻剋考肯縹闕...		ㄱ
		馱快...		ㅋ
	群	簣葵蕘軒逵郢饋戮...		ㄱ
	見	莧菘諷錕愧扛膾昆會柯...		ㄱ
儉...			ㅋ	
c	清	簇糙腠慄慄操榛湊潑輶...	開口洪音	ㅈ
		莉菴趾雌鹿束籽玼瓷...	開口細音 ¹⁶⁾	
		剝措猝卒陞...	合口洪音	
		*促蹲跛從...	合口細音	
		倉聰榮蹉草餐參採瞽滄綵鶴...	開口洪音	ㅊ
		刊狃忖撮爨竄崔璫確鑿轟...	合口洪音	
		(止攝)依次此此刺...	開口細音	
		*馱嗽顛蹶...	開口細音	
		*醉猝趑脆...	合口細音	
		猜...	開口洪音	
焠...	合口洪音	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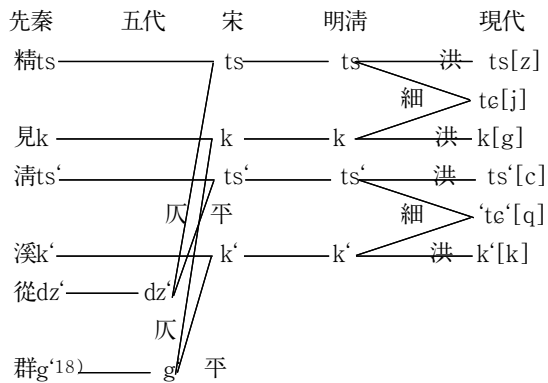
15) 본고의 도표에서는 현대 한국어 한자음 반영에 차이가 있는 경우만 ‘開合洪細’를 표기한다.

16) 止攝 글자는 한어 어음변천 과정 중 운모의 변화로 인해 [z]·[c]음이 유지되었다. 王力, 《漢語史稿》(中華書局, 1980.6), 123쪽 참고. 도표 안의 止攝 표

c	從(平)	臚藏蠶彘才曹材槽殞殘...	開口洪音	ㄷ	
		*從憎...	開口細音		
		(止攝)慈姿茨...			
		徂悰惇濶琮琮俎淙錙...	合口洪音	ㄷ	
		葦叢嗟慙瘡層睚積躑蹉...	開口洪音		
敢銚嶺摧嶺...	合口洪音				
		*叢慘...	開口細音		
z	精	再增簪稷槽臧戢葬左奏早災...	開口洪音	ㄷ	
		(止攝)	開口細音		
		咨子孜嶷漬滋資姿孛恣姊...			
		倅組罇尊樽宗摶租尊樽租...	合口洪音	ㄷ	
		*軟從蹤遵鶴...	合口細音		
		繫莖讚讚贊繫...	開口洪音		
		儂纂脛纒縻最碎攢纒峻鄴...	合口洪音		
			*構...	合口細音	
	(止攝)醉...				
			瓊...	開口洪音	ㄸ
		從(仄)	罪藏載贈昨族雜早在暫詐劓...		ㄷ
		趨禱...	開口洪音	ㄷ	
	從	(止攝)自苧...		ㄷ	
q	溪	丘乞器券稷緊縞契媿羌區缺...		ㄱ	
	清	但葦諛踟詭將狃敲磧幪胆...	開口細音	ㄷ	
		侄絳緜倭痊詮竣...	合口細音		
		且青淒切千哨請妻妾菽絳鶯...	開口細音	ㄷ	
		趣焮取趨...	合口細音		
	從(平)	藹潛嬌妝檣牆秦齊臍...	開口細音	ㄷ	
		全...	合口細音		
		賄嶠樵晴譙顛...	開口細音	ㄷ	
		泉...	合口細音		
		鈇燁...	開口細音		
	群	乾僑其勤鈞強狷耆聆胸臑鸛...		ㄱ	

시 글자는 모두 같은 상황이다. '*'표시의 글자들은 中古의 細音에서 어음변천 과정 중 洪音으로 변하여 [z] 혹은 [c]음을 유지한 글자들을 표시한다.

《廣韻》精·清·從·見·溪·群 성모의 주요 한어어음변천 과정과 그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⁷⁾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어에서 精·清·從母 글자들과 見·溪·群母 글자들이 宋 이후에 併합과정을 거친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精·清·從계열과 見·溪·群계열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北宋 전반기에 해당하는 古代韓國語에서는 10세기 전반에 이전에 이미 有氣음이 발생하여 k와 kh, ts와 tsh의 자음이 생성된 상황이었다.¹⁹⁾ 그러나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牙音(舌根音) 見·溪·群 세 성모는 모두 ‘ㄱ’음으로 읽혀지고 있으며, 精·清·從 세 성모는 ‘ㄷ’과 ‘ㄷ’음으로 읽혀진다. 본 논문의 분석 과정에서 見母 ‘儉’자와 溪母 ‘駮’·‘快’자가 유기음 ‘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儉’은 見母자이므로 한어 送氣와 不送氣의 구분은 아님을 알 수 있다. 精·清·從 세 성모에 모두 ‘ㄷ’과 ‘ㄷ’음으로 반영되지만, 두 자음 모두 中古 開口洪音·開口細音·合口洪音·合口細音의 글자들을 모두 포함

17) 본고의 한어 어음변천과정과 시기는 竺家寧의 《古音學入門》(臺灣學生書局, 1989.7)과 王力的 《漢語史稿》(中華書局, 1980)를 근거로 하여 만들었다.
 18) 先秦 이후 송나라까지의 從母와 群母의 추측음을 王力은 不送氣음으로 보고 있다. 본고는 竺家寧이 추측한 送氣음을 따른다. 아래도 같다.
 19) 崔範勳, 《韓國語發達史》(慶雲出版社, 1990), 70쪽 참고.

하고 있어 送氣와 不送氣의 구분이나 淸濁의 구분은 아니다.

한국 한자음 형성시기에는 유기음이 없었으나 10세기 전반까지는 유기음이 형성되었고, 全濁音은 생성되지 않았다.²⁰⁾ 최범훈 선생은 936년 이전의 고대국어에 k와 kh의 무기음과 유기음이 존재했었다고 주장한다.²¹⁾ 그러므로 적어도 10세기 이후의 한국 어음체계에서는 見과 溪·群을 구분할 수 있었고, 精과 淸·從을 구분할 수 있는 어음체계였다. 그러므로 한국어에 有氣音이 생성되기 이전에 유입된 漢字들이 送氣와 不送氣의 구분이나 淸濁의 구분 없이 유사한 음으로 반영되었고, 일부 글자들은 한국어 음에 적응하며 독자적으로 격음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어변천과 비교하였을 때 精·淸·從계열과 見·溪·群계열의 구분이 매우 뚜렷한 점이 五代이전의 한어 상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 《廣韻》曉·匣과 心·邪의 未合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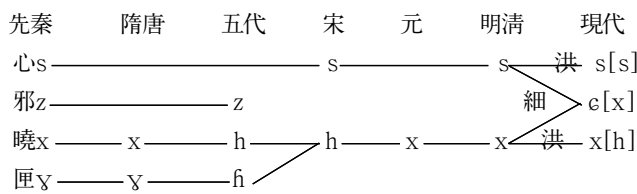
《廣韻》曉·匣·心·邪음은 현대 한어에서 성모 [x]·[h]·[s]음으로 발음된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現代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子音
	41聲類	例		
x	心	西些寫小相秀迅須洗珣醒性昔鮮...	細音	ㅅ
	邪	旬邪序夕祥徐習序詳謝邪巡旋象...	細音	ㅅ
	曉	休凶欣許顯絢義香饗曉興協血兄...	細音	ㅎ
		問颯煨嗚獠瘡瞎寧呷哮泮罅險...	開口洪音 ²²⁾	
	匣	項絮紱絃蟹諧眩賢頁穴炫弦懸刑...	細音	ㅎ
		降隈項夏誠幸轄遐閑滄狹洽下陷...	洪音 ²³⁾	

20) 崔範勳, 《韓國語發達史》(慶雲出版社, 1990), 71쪽 참고.
 21) 崔範勳, 《韓國語發達史》(慶雲出版社, 1990), 70쪽 참고.
 22) 어음변천 과정 중 中古의 洪音(開口2等)에서 [i]개음이 생겨 細音으로 변하면서 성모가 舌面化되었다. 王力, 《漢語史稿》(中華書局, 1980), 124쪽 참고.

h	曉	火貨昏花盲灰詢賄赫煥琥忽海荒...	洪音	ㅎ
		譏顯錄揮嗜噴嚙徽揮卉翬葦輝隳...	合口細音 ²⁴⁾	
	匣	互活紅胡回畫汗黃劬換賀航和恒...	洪音	ㅎ
		屹絲縵禕諱惠慧德德...	細音 ²⁵⁾	
s	心	三訴賽速塞塑桑掃索糕莎蒜蘇送...	洪音	ㅅ
		(止攝)夙雖淞崇竦笋玉四悚斯諄...	細音	
	邪	松...	洪音	ㅅ
		(止攝)遂頌汜祀松似兕誦似寺璿隋...	細音	

《廣韻》曉·匣·心·邪 네 성모 한자의 대표적인 한어어음변천 과정과 그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廣韻》喉音 曉·匣 두 성모와 心·邪 두 성모는 한어에서 宋나라 이후 합병되었다. 그러나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曉·匣 두 성모는 ‘ㅎ’음으로 반영되고, 心·邪음은 ‘ㅅ’음으로 반영되고 있어 구분이 매우 뚜렷하다. 고대 한국 어음은 10세기 전반에 이전에 자음 s음과 h음이 구성되었으나 全濁音은 발생하지 않았다.²⁶⁾ 全濁音을 구분하여 반영할 수 없었던 고대

23) 어음변천 과정 중 中古의 洪音(開口2等)에서 [i]개음이 생겨 細音으로 변하면서 성모가 舌面化되었다. 王力, 《漢語史稿》(中華書局, 1980.6), 124쪽 참고.
 24) 어음변천 과정 중 中古의 止攝 細音(開口3等·合口3等)자 및 일부 細音자는 운모의 변화 및 洪音化로 인해 舌面前化 되지 않았다. 王力, 《漢語史稿》(中華書局, 1980.6), 123쪽 참고. 도표의 ‘止攝’으로 표기한 글자들도 같은 상황이다.
 25) 어음변천 과정 중 中古의 細音의 운모가 洪音으로 변하여 舌面前化 되지 않았다. 王力, 《漢語史稿》(中華書局, 1980.6), 123쪽 참고.

한국 한자음이 全濁音 邪·匣을 각각 같은 발음부위의 心·曉음과 구별하여 반영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현대 한국 한자음은 明清 이전의 한어 어음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3. 일부 《廣韻》見·溪·群과 喉音(曉·匣·喻·爲·影)의 混用

일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ㄱ’으로 반영되는 見·溪 두 성모의 일부 글자들이 ‘ㅎ’음과 ‘ㅇ’음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음과 같다.

現代 漢語拼音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
	41聲類	例		
j	見	夾孩狹莢譎瀟割匯荊...		ㅎ
	溪	訐踴戛...		ㅇ
g	見	咳咳絳菱賅榻瀧亢創罨...		ㅎ
	溪	蝸蝸腕媿...		ㅇ
k	溪	榼熿兪閑恣駭...		ㅎ
q		恰愜欽高確匣篋...		ㅎ

또한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ㅎ’으로 반영되는 曉·匣·影 세 성모의 일부 글자들이 ‘ㄱ’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다음과 같다.

現代 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
	41聲類	例		
x	曉	霍歛...	細音	ㄱ
	匣	匣系褐覘榭輻襪校械榘檄混狎暇...	洪音 ²⁷⁾	
h	曉	蚶愨錡匄轟瘡响...		
	匣	閔宏斛藿蝥蝥醯譏撼洵紘趨曷搨...	洪音	
∅	影	偃軀		

26) 崔範勳, 《韓國語發達史》(慶雲出版社, 1990), 71쪽 참고.
 27) 어음변천 과정 중 中古의 洪音(開口2等)에서 [i]개음이 생겨 細音으로 변하면서 성모가 舌面化되었다. 王力, 《漢語史稿》(中華書局, 1980), 124쪽 참고.

위 도표의 ‘ㅎ’·‘ㅇ’·‘ㄱ’으로 반영되는 글자들은 각각 中古 開口洪音·開口細音·合口洪音·合口細音의 글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介音의 영향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기본적으로 ‘ㅎ’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曉母와 匣母이고²⁸⁾, 影母는 ‘ㅇ’음으로 반영된다.²⁹⁾ 위의 글자들에서 한국 한자음에 牙音 見母·溪母 두 성모 글자들과 喉音이 어음에서 혼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牙音과 喉音의 어음적인 혼용은 발음부위의 근접으로 인해 한어 어음 변천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夏燮之는 古聲母에 있어 ‘牙·喉合用說’을 주장하며 牙音과 喉音의 발음은 深淺의 차이일 뿐으로 발음이 유사함을 언급하며, 그 증거로서 옛 문헌자료에서 ‘奇’와 ‘倚’가 혼용되고, ‘甲’과 ‘狎’의 혼용, ‘絳’과 ‘紅’의 혼용 등을 언급하였다.³⁰⁾ 이 예들은 牙音 見母 奇·甲·絳 세 글자가 각각 喉音 影母 倚·匣母 狎·洪자와 같은 음으로 혼용된 현상이다. 또한 현대 한어에서도 溪母 悞·恢자가 한어병음 [h]성모로 읽혀지고, 見母 梟자가 한어병음 [x]성모로 읽혀지는 등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방언의 경우에도 溪母 哭·酷 등의 글자가 廈門·潮州방언에서 曉母·匣母 두 성모를 반영하는 h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한어 자체가 牙音과 喉音의 어음상 혼용 현상이 종종 나타남을 증명한다. 한국 한자음에서의 牙音과 喉音의 혼용 현상은 고대 한어의 時音 및 방언의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4. 《廣韻》幫·滂·並과 非·敷·奉母의 未分化

《廣韻》幫·滂·並의 세 성모는 현대 한어에서 [b]와 [p]음으로 발음되고, 非·敷·奉 세 성모는 [f]음으로 발음된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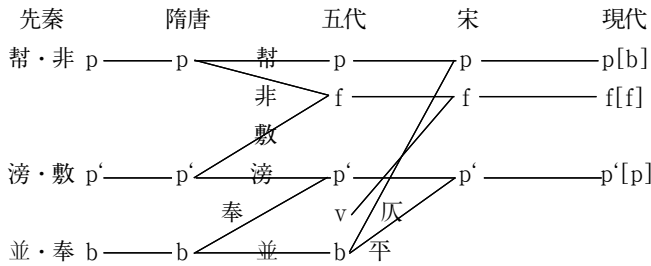
28) 본 논문 III-2 참고.

29) 본 논문 III-8 참고.

30) 陳新雄, 《古音學發微》(臺北市, 文史哲, 1996.10), 615-617쪽.

現代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子音	
	41聲類	例			
b	幫	北綉繡薛祿邦堡駁餅博卜百梆保...	開口洪音	ㄸ	
		般笨撥輩鉢班奔扒拜斑本杯背謗...	合口洪音		
		比邠鄙妣壁悲鼻卑并庇柄伯賓辟...	開口細音		
		(梗韻) 炳柄秉竊...	合口細音	ㅃ	
		佈包褒豹貝鈇靶飽把埧祜擺伴芭...	開口洪音		
		簸颯譚飯版播販哺板波跛舖...	合口洪音		
	並(仄)	砑畢編蕪襍貶閉鞭鯁筆必標蔽表...	開口細音	ㄸ	
		鮑珙啐股白窞箔帛憇毫蓓薄藪霍...	開口洪音		
		倘簿芟芑鶉掙盆焯友扶杼步淳部...	合口洪音		
		聶辨必鞞齷拏鼻下笙獮病弁別蹙...	開口細音	ㅃ	
		赧耀婢邑瓣抱跑跑...	開口洪音		
		捕哺亨悖敗諄邲...	合口洪音		
	p	滂	泌肺苾陞秘鏗敝幣礪斃桂被駮...	開口細音	ㄸ
			鏘鮑埃拍樸滂瀟珀盼磅攀朴剖秀...	開口洪音	
配抔抔泔啤啤噴咄普歆泮潘泮鑿...			合口洪音		
劈瓶娉批滂穉癖癖穉鳴澗丕僻譬...			開口細音	ㅃ	
匄肥霽霽拋沛碎炮抨汜泡溲浮葩...			開口洪音		
破巨派浦判頗...			合口洪音		
並(平)		偏標匹篇黠破漂鑿片媯嫖便剽翩...	開口細音	ㄸ	
		篷降絳絳珊桴掙撈朋棚翳俳筭蓬...	開口洪音		
		培裴蹕盤磻磬衍旁槃滌菩蟠鏤陪...	合口洪音		
		膾貧胼鉞頻癩毗毗瓶琵琶嬪枇泐凭...	開口細音	ㅃ	
		袍鞞鹿牌騶炮爬狍琶庖匏澎跑駟...	開口洪音		
		匍蒲菹鄱圃哺...	合口洪音		
f		非	縹萃虻評躡皮坪瓢疲平樞梗萍飄...	開口細音	ㄸ
			踴輻馥福方鈇邠物坊枋饋瘠否舫...	開口細音	
	法付甫蕃放發反奮弗不分膚非飛...		合口細音		
	諷風...		開口細音		
	敷	販廢廢脯...	合口細音	ㅃ	
		副嫂覆訪髣孚怀紡仿...	開口細音		
		泛鋒妃俘蜂訃費赴霏竽彿汎芳馱...	合口細音		
		豐豐豐...	開口細音	ㅃ	
		肺蕪馱...	合口細音		
		伏偵匄解復負服婦鉞涪苳鳳阜鳳...	開口細音		
	奉	伐焚苻飯輔逢附房煩夫奉凡罰防...	合口細音	ㅃ	
		茂吠馮...	合口細音		
			合口細音		

《廣韻》幫·滂·並·非·敷·奉 여섯 성모 글자들의 대표적인 한어어 음변천 과정과 그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廣韻》幫·滂·並과 非·敷·奉은 한어에서 隋唐때 분화하여 각각 어 음변천이 진행되었다. 《廣韻》幫·滂·並·非·敷·奉 여섯 성모 글자들은 한국 한자음에서 무기음 ‘ㅂ’음과 유기음 ‘ㅍ’음으로 반영되고 있어 幫·滂·並과 非·敷·奉은 구분 되지 않고 있다. ‘ㅂ’음과 ‘ㅍ’음의 반영 내용에는 한어의 送氣·不送氣 및 清濁의 구분이 없고, 또한 介音의 영향도 없음을 볼 수 있다. 10세기 전반에 이르러 한국 어음에 p와 ph의 구분이 있었음³¹⁾에도 불구하고 送氣·不送氣의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대 한국 어음에서 唇齒音 f·v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幫·滂·並과 非·敷·奉의 구분은 불가능하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10세기 전반 이전 한국 어음에 全濁音이 없고 유기음이 생성되기 이전에 유입된 일부 글자들이 한국 어음 환경의 필요에 따라 격음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廣韻》端·透·定과 知·徹·澄母자의 分化

《廣韻》端·透·定 세 성모는 현대 한어에서 [d]와 [t]음으로 발음되고, 知·徹·澄 세 성모는 照·穿·禪(일부)·莊·初·牀과 함께 권설음 [ʒ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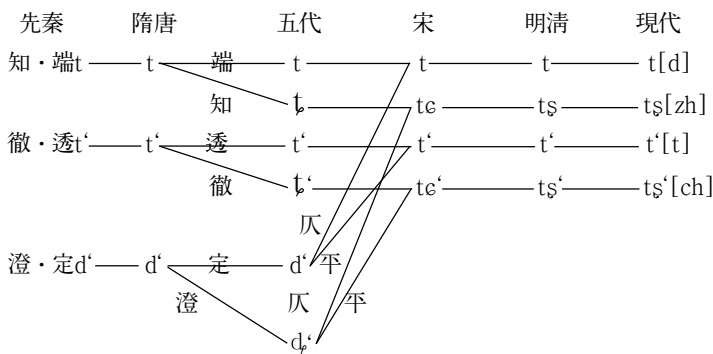
31) 崔範勳, 《韓國語發達史》(慶雲出版社, 1990), 70-71쪽 참고.

· [ch] · [sh]음으로 발음된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의 端 · 透 · 定과 知 · 徹 · 澄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現代 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	
	41聲類	例			
d	端	多陡棟登戴當瞻等答黨丹凍刀到...	開口洪音	ㄷ	
		短端賭鍛對拖敦督睹端冬篤都頓...	合口洪音		
		醜餒耽躡殫耽耽...	開口洪音	ㅌ	
		顛餽蝮妬朶埤錘剝錄...	合口洪音		
	透	貸斜珊躡...	開口洪音	ㄷ	
		躡...	合口洪音		
		孑...	開口細音	ㅌ	
		莖...	合口洪音		
	定(仄)	代道袋導鄧淡燾黛爹獨盜大待讀...	開口洪音	ㄷ	
		肚莊葯蠅讖遜駭度毒斷杜段渡隊...	合口洪音		
		掉狀...	開口細音	ㅌ	
		舵渡鐸侈怠殆逮盪啜宕彈恠給蕩...	開口洪音		
t	透	滔達朮踏鐙恠躡黯叨搯撻儻譚...	開口洪音	ㄷ	
		稼踰踰嗽煇燼徐湍...	合口洪音		
		他偷泰討貪通塔透太它態探桶歎...	開口洪音	ㅌ	
		腿脫妥能唾土唾嗽煇稅櫛償脫退...	合口洪音		
	定(平)	頭銅塘壇臺藤躡覃談唐掬桃僮逃...	開口洪音	ㄷ	
		塗屠彤徒恠恠疼瘡圖團屯廡滂豚...	合口洪音		
		跳...	開口細音	ㅌ	
		苔踢驛駁臉筒駝跣廢投伺柁駝...	開口洪音		
	zh	知	謫趨趨釘窳丁譴...	開口洪音	ㅈ
			肘蚰貞質輾鎮展徵朝珍知帳中豬...	開口細音	
			蛛株誅軋轉鈕拄宙株株邾駐...	合口細音	ㅈ
			詭駝礫站晰嘶柁...	開口洪音	
衷陟陟枯張竺哲參忠沾置玆致輒...			開口細音	ㅈ	
綴泚啜瘞筠斲斲櫛冢斲膠追鑄...			合口細音		
澄(仄)		謙...	開口洪音	ㅈ	
		仗趙鄭軼朕直朕秩桃杼丈仲兆箸...	開口細音		
		住篆幢柱跬隊...	合口細音	ㅈ	
		蛇...	開口洪音		
		多躡輒雉鯨鳩滯滯稚穉峙峙值遂遂...	開口細音	ㅈ	
		腿蠲墜甄硯朮絕躡...	合口細音		

ch	徹	藿捩...	開口洪音	ㄷ
		傑躒詔超踞暢銀悃憫滯癡忡抽丑...	開口細音	
		孛龜鷗仇黜琿杻椿鐘軛...	合口細音	
		虹煙褚胡經頰蹠疾荼扶櫬...	開口細音	
	澄(平)	振振...	開口洪音	ㄷ
		池儲趁遲場呈塵持晁潮澄腸除陳...	開口細音	
		傳鍾醜嶠躑...	合口細音	
		勦...	開口洪音	
		狷鈇霰冲湛時熾种沈治蟲馳...	開口細音	
		鎚椎槌...	合口細音	

《廣韻》端·透·定와 知·徹·澄 성모 글자들의 대표적인 한어어음변천 과정과 그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廣韻》端·透·定과 知·徹·澄는 隋唐 이전에 같은 음으로 발음되다가, 五대에 이르러 완전히 분리된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廣韻》端·透·定 세 성모 글자들은 기본적으로 ‘ㄷ’과 ‘ㄷ’으로 발음되고, 知·徹·澄 세 성모는 ‘ㄸ’과 ‘ㄸ’으로 발음되고 있어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15세기 말엽부터 16세기 말엽까지의 한국 전래한자음을 반영하는 문헌에서는 知·徹·澄의 글자들이 ‘ㄷ’이나 ‘ㄷ’으로 반영되었음이 보여 진다.³²⁾

32) 이토 지유키저·이진호 역, 《한국 한자음 연구》(도서출판 역락, 2011.4), 118

현대 한자음에서 洪細에 관계없이 ‘ㄷ’과 ‘ㄷ’음으로 발음되고 있는 것은 漢語에서 宋나라 이후 舌面前音(tc · tc’) · 舌尖后音(tʂ · tʂ’)으로 발음되던 영향을 받아서 변천했을 가능성이 있다.

《廣韻》端 · 透 · 定을 반영한 ‘ㄷ’과 ‘ㄷ’ 두 발음에는 送氣 · 不送氣의 구분이나 開合洪細의 구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고대 한국 어음에 有氣音과 全濁音이 존재하지 않은 시기에 유입된 한자음이 한국 토착어음의 환경에서 격음화되어 발전한 원인일 것이다. 현대 한자음에서 端 · 透 · 定 세 성모가 知 · 徹 · 澄과 분명히 구분되었다는 점과 送氣와 不送氣의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 한자음은 五代이후 端 · 透 · 定과 知 · 徹 · 澄이 분화된 어음현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6. 일부 《廣韻》 知 · 徹 · 澄母의 ‘知古歸定’ 반영

주목할 만한 것은 《廣韻》知 · 徹 · 澄 세 성모의 일부 글자들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ㄷ’과 ‘ㄷ’음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다.

現代 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
	41	例		
zh	知	倬椽涿卓琢啗黠咤吒...	開口洪音	ㅈ
	澄(仄)	撞權...		ㅈ
		蠲錫擢庀擢擇濁...		ㅈ
ch	徹	詫答撐...		ㅈ
	澄(平)	桃幢...		ㅈ
				耗...

이 글자들은 다른 知 · 徹 · 澄 세 성모와 달리 ‘ㄷ’과 ‘ㄷ’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 開口2等 글자들이다. 이 글자들은

知·徹·澄이 端·透·定에서 분화되기 이전인 先秦에서 隋唐까지의 어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한국의 15세기 말엽부터 16세기 말엽까지의 어음이 보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일부 《廣韻》 端·透·定의 口蓋音化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廣韻》端·透·定 세 성모의 일부 글자들은 한국 한자음에서 ‘ㄷ’과 ‘ㅌ’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다음과 같다.

現代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子音
	41聲類	例		
d	端	頂低適釘堤弔點鼎的塾帝底店典...	開口細音	ㄷ
		葶蝨蟻諦貂酌喋...	開口細音	ㄷ
	透	錫...	開口細音	ㄷ
	定(仄)	笛荻筴訂鋌敵甸第咥奠定弟殿電...	開口細音	ㄷ
蝶遶堞墀氈滌牒髻疊禘攪杖逮鈇...		開口細音	ㄷ	
t	透	脛遜眺洩珽町篠輶梠梯汀佻貼眺...	開口細音	ㄷ
		貼踢鐵體帖拈天廳忝涕替涕添剔...	開口細音	ㄷ
	定(平)	田停蝸提詵錡碩啼哢廷條沍亭題...	開口細音	ㄷ
		莒遞岢聒髻滌迢...	開口細音	ㄷ

이 글자들은 端·透·定 세 성모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ㄷ’이나 ‘ㅌ’으로 반영되는 것과는 달리 淸濁이나 送氣·不送氣에 구분 없이 ‘ㄷ’과 ‘ㅌ’ 발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 현상이 주로 開口4等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어 어음변천사에서 그 원인을 찾기에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주로 細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16세기 한국어에 출현하기 시작한 구개음화현상³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端·透·定이 ‘ㄷ’과 ‘ㅌ’음으로 반영되는 한국 한자음의 특성에서 보면, 한어 고음 定母에서 분화되어 나온 喻母³⁴⁾의 簪·

33) 崔範勳, 《韓國語發達史》(慶雲出版社, 1990.10), 139-140쪽 참고.

暢·陆 등 일부 글자들이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ㄷ’으로 반영되는 현상이 어음 변천사를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어 古音을 보유하던 일부 喻母의 글자들이 한국 어음에서 구개음화되어 ‘ㄷ’으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어 고음 定母에서 분화되어 나온 禪母³⁵⁾의 일부 글자들 儻·圖·歎·忱·擅이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ㄷ’음으로 발음되는 원인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8. 《廣韻》影·喻·爲·疑·日母의 零聲母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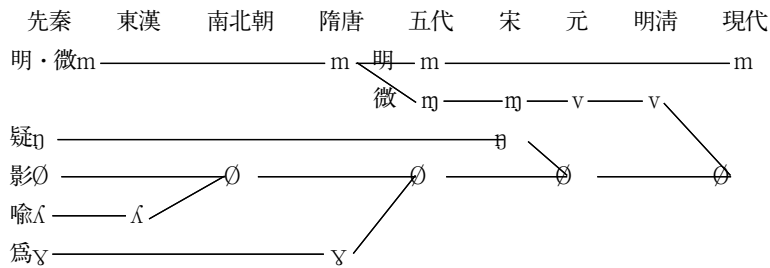
《廣韻》影·喻·爲·微·일부 疑母·일부 日母의 글자들은 현대한어에서 零聲母로 발음되고, 일부 疑母자는 泥·娘 두 성모와 함께 한어병음 [n]음으로 발음되며, 일부 日母자들은 일부 喻母 글자들과 함께 한어병음 [r]음으로 발음된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과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現代漢語	《廣韻》		韓國子音
	41聲類	例	
m	明	蒙木貓墨妹滅米網謨苗閏陌魔名...	ㅁ
∅	微	亡未尾勿妄紋蕪腕襪望物珉問誣...	ㅇ
	疑(開細3等 제외)	五玉雅樂元月午迎顏危藝銀吳噩...	
	影	亞要伊一冤屋約乙邑音印鴛意苑...	
	喻(榮·容·鎔·融 등 일부 제외)	予以亦冶余用浴允陽夜遙異與餘...	
	爲(雄熊 제외)	于云位佑爲王有越韻遠羽違雨雲...	
r	日(止攝開口)	二俱兒耳貳綏而肺貳醜馱駟爾而...	ㅇ
	日(止攝開口 제외)	豚若染辱辱馱馱恁攘柔乳人任繞...	
n	喻 일부	鎔銳...	ㄴ
	泥	農奴乃男納那難納能膿罇裏板腦...	
	娘	濃女匿紐袖袈襪饒獬狃踏鈕扭鈿...	
	疑(일부 開細3·4等)	凝儻牛逆槩韃蕤倪輓鐵靛...	ㅇ

34) 陳新雄, 《古音學發微》(臺北市: 文史哲, 1972.1), 684-689쪽.

35) 陳新雄, 《古音學發微》(臺北市: 文史哲, 1972.1), 757쪽.

《廣韻》端·透·定와 知·徹·澄 성모 글자들의 대표적인 한어어음변천 과정과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어에서 《廣韻》影·喻·爲·微·일부 疑母·일부 日母의 글자들이 零聲母化된 시기는 성모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영성모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影·喻·爲·疑母는 모두 零聲母에 해당하는 ‘ㅇ’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 중 喻母는 南北朝때 이미 영성모화되었지만, 일부 글자 榮·容·鎔·融는 현대 한어에서 ʐ음으로 반영된다. 元나라 《中原音韻》에서도 榮·容·鎔·融 등의 글자들은 庸·傭 등의 영성모 글자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다.³⁶⁾ 이 글자들이 ʐ음으로 반영된 것은 그 이후로 보여 진다. 단지, 이토 지유키의 분석에 의하면 15세기에서 16세기 문헌 중에 融이 ‘룽’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헌도 있다고 한다.³⁷⁾ 오늘날 濟南방언에서도 榮·容·融 글자들이 日母와 함께 ʐ성모로 반영되고 있다.³⁸⁾ 한국 한자음에서 한때 혀 끝소리 ‘ㄹ’음으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보이지만, 두음법칙에 의하여 현

36) 陳新雄, 《新編中原音韻概要》(臺北縣: 學海出版社, 2001.5), 26쪽.
 37) 이토 지유키저·이진호 역, 《한국 한자음 연구》(도서출판 역락, 2011.4), 183쪽.
 38)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 編, 《漢語方音字彙》(北京: 語文出版社, 2003.6), 369쪽.

대에는 모두 ‘ㅇ’음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疑母의 경우는 開口3等과 開口4等の 일부 글자만 舌尖의 [n]음으로 변하고 대부분 元나라 이전에 聲母가 탈락하고 零聲母化된다. 고대 한국어(10세기 초반 이전)와 중세 한국어(10세기부터 15세기)에 鼻音 ㄴ이 있어서 분별하였을 가능성도 보인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모두 ‘ㅇ’음으로 변화였다.

2) 현대 한국어에서 微母는 明母와 함께 ‘ㄹ’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한어 어음변천에서 微母 글자들은 五代에 이르면 唇齒音 ㅁ으로 변하고, 元나라에 이르면 唇齒音 ㅂ로 발음된다. 한국 고대한자음에서 雙唇의 m과 발음이 유사한 鼻音 唇齒 ㅁ를 구분할 수 있는 자음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宋나라 이전의 한어어음 상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3) 日母자는 한어어음변천에서 주로 ㄹ음으로 반영되고 일부 글자가 零聲母로 변화하였다. 明나라 徐孝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과 《合併字學集韻》(1602년)에는 日母자의 일부 글자들이 零聲母化된 현상이 나타난다.³⁹⁾ 일부 日母자의 零聲母化가 명나라에 이르러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한어의 상황과는 달리 대부분의 日母 글자들이 ‘ㅇ’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어음 고유의 변천이다. 중고 한국 한자음에는 摩擦音 ‘ㄷ’자음이 있어 日母자의 聲母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에는 ‘ㄷ’이 탈락하여 ‘ㅇ’음으로 변화한다.⁴⁰⁾ 그러므로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한어의 상황과는 달리 日母자가 零聲母로 반영되고 있다.

39) 줄지, <명대(明代) 영성모화(零聲母化)현상 연구>, (《中國語文學》第47輯, 2006. 6), 445쪽.

40) 이토 지유키저·이진호 역, 《한국 한자음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11.4), 170쪽.

9. 일부 《廣韻》爲母와 匣母의 混用

《廣韻》爲母 글자들은 先秦에서 隋唐시기까지 匣모와 같은 음으로 발음되다가 五代에 이르러 분화되었다.⁴¹⁾ 한국 한자음에서 爲母의 일부 글자들이 ‘ㅎ’ 발음으로 반영되었다. 다음과 같다.

現代 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
	41聲類	例		
∅	爲	夔弼...		ㅎ

위 8의 한어 어음변천과 대조하였을 때, 이 글자들은 先秦에서 隋唐시기까지의 古音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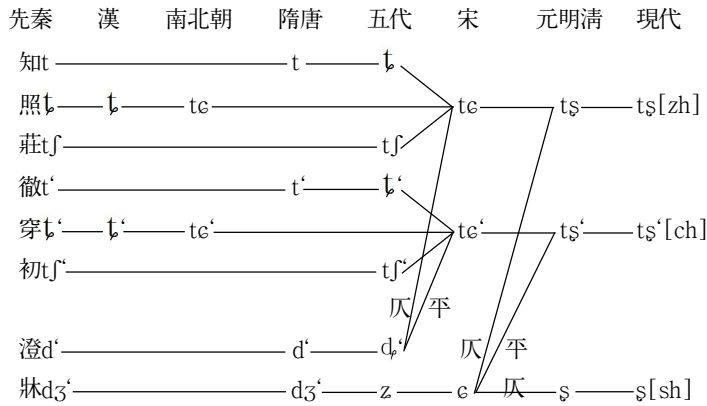
10. 《廣韻》知·徹·澄/照·穿/莊·初·牀/精·清·從母의 합병

현대 한어에서 知·徹·澄/照·穿/莊·初·牀은 권설음 [zh]·[ch]음으로 발음되고, 精·清·從은 [j]·[q]·[x]성모로 발음된다. 精·清·從 세 성모와 知·徹·澄 세 성모는 한국 한자음에서 ‘ㄷ’과 ‘ㄷ’음으로 반영되고 있다.⁴²⁾ 照·穿과 莊·初·牀의 한국 현대 한자음 반영은 다음과 같다.

現代 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
	41聲類	例		
	照	澄粥診職肢震診戰掌政章製占周...	開口細音	ㄷ
		佗殊純舛鍾鍾鍾壽專朱烜注準腫...	合口細音	
		禪詹遮針隻寘彰招祝帚撫枕葳鋤...	開口細音	ㄷ
		縹贅雛鸚屬燭囑駮囑萑蠟錐...	合口細音	
		諄讐檀嬉佶昭沼...		

41) 王力, 《漢語語音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5), 496쪽.

42) 精·清·從과 知·徹·澄의 한국 한자음 대응내용은 위 1과 5를 참고 바람.



한어의 어음변천에서 宋나라에 이르면 知·徹·澄과 照·穿 및 莊·初·牀가 舌面前音 tc·tc'·c음으로 병합되고, 精·淸·從은 같은 塞擦音인 舌尖前音 ts·ts'음으로 발음된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知·徹·澄/照·穿/莊·初·牀/精·淸·從은 기본적으로 유사음인 ‘ㄷ’과 ‘ㄷ’음으로 반영되어 宋대의 어음상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ㄷ’과 ‘ㄷ’음에는 각각 中古 開口洪音·開口細音·合口洪音·合口細音의 글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위에서 분석한 ‘ㄷ’·‘ㄷ’과 같이 送氣와 不送氣의 구분이나 淸濁의 구분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역시 한국 어음에 유기음이 형성되기 이전인 10세기 이전에 유입되어 한국 토착어음의 영향을 받아 변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精·淸·從/照·穿/莊·初·牀의 일부 한자들은 한국 한자음에서 ‘ㄷ’음으로 반영되었다. ‘ㄷ’음으로 반영되는 글자들이 주로 精·淸·從/照·穿/莊·初·牀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음변천사의 현상에서 보았을 때, ‘같은 발음방법을 가진 글자들의 발음상 혼동’에 기인한 同位相變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고음 및 중국 각 시대의 운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역대 성운학자들도 많은 예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⁴⁴⁾ 精·淸·從과 같은 발음방법을 가진 心·邪와 照·穿과 같은 발음방법을 가진 神·審·禪 및 莊·初·牀과 같은 발음방법을 가진

疎가 모두 한국 한자음에서 ‘스’음으로 반영되고 있으므로, 漢語의 어느 한 시기나 한 지역의 同位로 인한 혼용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현상은 현대 중국방언에서도 많이 보여 지고 있다. 예를 들어, 從母인 坐와 槽는 福州방언 백화문에서 s음으로 읽혀지고 字는 梅縣방언에서 s음으로 읽혀진다. 淸母 揸는 厦門방언과 潮州방언 백화문에서 s음으로 읽혀지고, 穿母 處와 牀母 豺[chai]·柴[chai]는 陽江방언에서 心·審·禪·審母자를 반영하는 ʃ음으로 읽혀지며, 精母 躁는 厦門방언과 福州방언의 백화문에서 s음으로 읽혀진다. 또한 牀母 巢는 梅縣방언에서 s음으로 읽혀지고, 照母 囑[zhu]은 成都에서는 s성모로 읽혀진다.⁴⁵⁾

11. 《廣韻》心·邪·神·審·禪·疏·일부 牀母의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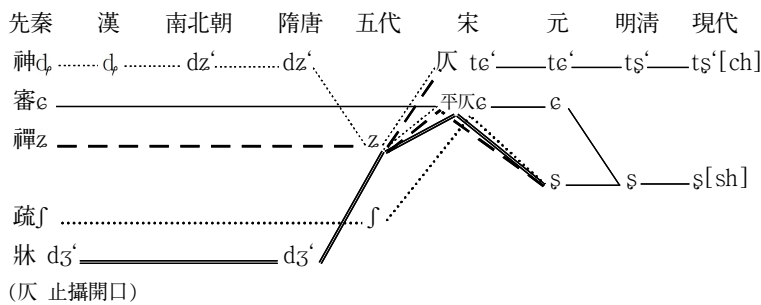
현대 한어에서 心·邪는 [x]성모로 읽혀지며, 神·審·禪·疏·牀(仄聲 止攝開口字)은 주로 권설음 [sh]로 발음되고, 疏의 일부 글자는 [s]음으로 발음되며, 神·禪성모의 일부 글자만이 [ch]음으로 발음된다. 神·審·禪·疎母 글자들의 한국 현대 한자음 반영은 다음과 같다.⁴⁶⁾

現代 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
	41聲類	例		
s	疏	所森色所搜灑搜穉瑟瑟齋菟謨... 縮襪...		ㅅ ㅆ

44) 陳新雄, 《古音學發微》, (臺北市: 文史哲, 1972.1), 672-673쪽.
 줄거, 《呂介孺及其音學研究》, (中國文化大學中國文學研究所 博士論文, 2006. 6), 233-234쪽.
 賴金旺, 《<字學元元>音系研究》, (中國文化大學中國文學研究所 碩士論文, 2001. 6), 200-204쪽.
 45)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北京: 語文出版社, 2003.6), 36, 37, 57, 118, 121, 151, 183, 185, 187쪽.
 46) 心·邪의 한국 한자음 대응내용은 위 2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ch	神(平일부)	船陸柳晨滑乘脣...	入
	禪(平일부)	匙酬醇徇植禪盛城常承純臣...	入
			澶... 忱儻圖歎...
sh	審	傷身舍首始叔聖試商勢書束水...	入
	疏	生沙數色性莘朔省率參史山梳...	入
			栓... 簪雙...
	神	舌諡贖順盾峽沭甚蝕術歎述食...	入
	禪	石誓壽受裳視逝是樹殊善時上...	入
			擅... 蜀蠲瑯端...
	牀 (仄:止攝開口)	仕士柿...	入

《廣韻》神·審·禪·疏·牀 성모 글자들의 대표적인 한어어음변천 과정과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⁴⁷⁾



舌尖后음이 없는 한국 한자음에서 이 글자들이 ‘ㄷ’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宋나라때 心·邪가 s음으로 합류하고, 五代때 神·審·禪·疏·일부 牀 성모의 글자들이 z음으로 합류되었을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 神母 글자들은 현대 한어에서 [ch]나 [sh]음으로 반영되지만,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47) 心·邪 두 성모의 한어어음변천과정은 위 2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한다.

모두 ‘시’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 중국 방언에서도 현대 한어에서 [ch] 음으로 발음되는 글자들이 s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예를 들면, 禪母 垂는 揚州방언 백화문과 梅縣·廈門·潮州·福州지역의 방언에서 s음으로 발음되고, 植은 廈門·潮州·福州지역에서 s음으로 발음되며, 匙는 長沙·南昌·梅縣방언에서 s음으로 발음된다.⁴⁸⁾ 이는 五代때 s와 발음방법(擦音)과 발음부위(舌尖前音)가 같은 z음으로 병합되었을 때의 어음상황과 유사하다.

일부 疏·禪 두 성모의 글자들이 ‘ㅈ’·‘ㅊ’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ㅈ’음으로 반영되는 글자들과 ‘ㅊ’음으로 반영되는 글자들은 모두 中古 開口洪音·開口細音·合口洪音·合口細音의 글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送氣와 不送氣의 구분이나 淸濁의 구분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대 한어 어음변천의 영향이나, 위에서 언급한 ‘같은 발음방법을 가진 글자들의 발음상 혼동’인 ‘同位相變’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禪母 枕儻圖歎 등 일부 글자들은 현대 한어에서 [ch]음으로 발음되고 있어 그 영향을 받아 유사음인 ‘ㅊ’으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疏母와 같은 발음방법을 가진 莊·初·牀 성모의 글자들이 한국에서 ‘ㅈ’·‘ㅊ’으로 발음되고, 禪母와 같은 발음 방법을 가진 照·穿 성모의 글자들이 한국에서 ‘ㅈ’·‘ㅊ’으로 발음되고 있기 때문에 漢語의 어느 한 시기나 한 지역의 同位로 인한 혼용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疏母의 ‘夔’·‘雙’ 등의 글자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된소리 ‘ㅃ’으로 반영되었다. 한국 어음체계에서는 15세기 중엽 훈민정음 체계에 이르러서야 ‘ㅃ’음이 보여 진다. 한국 어음체계에 全濁音 ‘ㅃ’이 생성된 이후, 全濁音인 疏母의 ‘夔’·‘雙’ 등의 글자가 당시 한어에서 舌尖后音[sh]으로 발음되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8)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北京: 語文出版社, 2003.6), 62, 65, 166쪽.

12. 기타

위에서 언급한 글자들 외에 泥·娘 두 성모와 明母·來母의 글자들이 있다. 泥·娘 두 성모의 글자들은 위 8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한어에서 [n]음으로 발음된다. 王力은 두 성모가 先秦 이후 현대까지 모두 같은 n음으로 발음되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中古 36字母에서 泥·娘 두 성모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어느 정도의 발음상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陳新雄은 9세기에 이르러 두 성모가 분화되었다고 보고 있다.⁴⁹⁾ 明나라 운서에는 두 성모가 합류되어 나타나고 있어 泥·娘 두 성모가 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明나라 이전에 이미 합류되었음을 나타낸다.⁵⁰⁾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廣韻》 泥·娘 두 성모가 모두 ‘ㄴ’으로 반영되었다.

來母 글자들은 한어 어음변천사에서도 來母자는 先秦부터 현대까지 l음으로 발음되어 변화가 없었으며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도 모두 ‘ㄹ’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明母 글자들도 先秦부터 현대까지 m음을 유지하였으며,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도 모두 ‘ㄹ’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어의 어음 변천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 한국 한자음의 특징을 연구하여 정리하였다. 崔範勳은 10세기 전반 이전 한국 한자음의 10세기 전반 이전에 有氣音이 존재하지 않았고, 15세기 중엽까지 全濁音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한어의 送氣·不送氣의 구분이나 全濁音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어, 옛 한국

49) 陳新雄, 《古音學發微》(臺北市: 文史哲, 1972.1), 1165쪽.

50) 졸저, 《呂介孺及其音學研究》(中國文化大學 中國文學研究所 博士論文, 2006. 6), 212쪽.

어에 有氣音이나 無氣音 중 하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 어음의 자음체계의 영향으로 해당 音值의 자음이 없는 경우는 유사음으로 병합되는 현상이 뚜렷하며, ㄱ·ㄷ·ㄴ 세 음 사이의 ‘同位相變’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현대 한국 한자음에는 한어의 고음·중고음·근대음과 유사한 어음체계가 모두 보여 지고 있어, 양국의 유구한 문자적 교류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日母자의 영성모화·일부 《廣韻》 端·透·定 글자의 口蓋音化 등의 고유 한국 토착음의 어음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해 낸 현대 한국 한자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廣韻》精·淸·從과 見·溪·群의 不合併
2. 《廣韻》曉·匣과 心·邪의 未合併
3. 일부 《廣韻》見·溪·群과 喉音(曉·匣·喻·爲·影)의 混用
4. 《廣韻》幫·滂·並과 非·敷·奉母의 未分化
5. 《廣韻》端·透·定과 知·徹·澄母자의 分化
6. 일부 《廣韻》知·徹·澄母의 ‘知古歸定’ 반영
7. 일부 《廣韻》端·透·定の 口蓋音化
8. 《廣韻》影·喻·爲·疑·日母의 零聲母化
9. 일부 《廣韻》爲母와 匣母의 混用
10. 《廣韻》知·徹·澄/照·穿·莊·初·牀/精·淸·從母의 합병
11. 《廣韻》心·邪·神·審·禪·疏·일부 牀母의 합병

그 외, 來·泥·娘·明 네 성모의 글자들은 한어 어음변천과 같은 성향을 나타내었고, 微母는 한어에서 영성모화된 반면에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明母와 같은 발음 ‘ㄹ’로 반영되고 있다.

< 參考文獻 >

【 단행본 】

-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 編, 《漢語方音字彙》(2版; 北京, 語文出版社), 2003.6.
-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 編, 《漢語方音詞彙》(語文出版社, 2005.1).
- 宋) 陳彭年 등 重修, 林尹 校訂, 《新校正切宋本廣韻》(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99.11.
- 엄익상, 《한국한자음 중국식으로 보기》(한국문화사), 2008.8.
- 王力, 《漢語史稿》(新1版; 北京市, 中華書局), 1980.6.
- 王力, 《漢語語音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5.
- 袁家驊 등, 《漢語方言概要》(語文出版社, 2006.4).
- 이토 지유키저 · 이진호 역, 《한국 한자음 연구》(도서출판 역락), 2011.4.
- 張啓煥 · 陳天福 · 程儀, 《河南方言研究》(河南大學出版社), 1993.1.
- 陳新雄, 《古音學發微》(臺北市: 文史哲), 1972.1.
- 陳新雄 編著, 《新編中原音韻概要》(臺北縣: 學海出版社), 2001. 5.
- 竺家寧, 《聲韻學》(臺北市: 五南圖書出版公司), 1992.7.
- 崔範勳, 《韓國語發達史》, (慶雲出版社), 1990.10.

【 논문 】

- 賴金旺, 《字學元元音系研究》, 臺北市: 中國文化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1.6.
- 楊人從, 《韓國漢字音과 中國北方音의 比較研究》, 建國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 박사학위논문, 1982.
- 鄭雅方, 《《元音統韻》音系研究》, 臺北: 中國文化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5.6.

- 졸저, 《呂介孺及其音學研究》, 中國文化大學中國文學研究所 博士論文, 2006.6.
- 龔煌城, <從漢藏語的比較看重紐問題>, 《聲韻論叢》第1輯, 臺灣學生書局, 1994.5.
- 羅常培, <釋重輕>, 《羅常培語言學論文選集》(北京:中華書國), 1963.9.
- 졸저, <명대(明代) 영성모화(零聲母化)현상 연구>, 《中國語文學》第47輯, 2006.6.
- 楊時逢, <南昌音系>, 《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三十九本, 中央研究院, 1969.1.
- 吳世峻, <從朝鮮漢字音看一二等重韻問題>, 《聲韻論叢》, 臺北市:臺灣學生書局, 1992.5.
- 周及徐, <韓語與上古漢語對應詞舉例>, 東亞人文學會 第10屆 國際學術大會 발표논문집, 2009.12.
- 周美慧, <《韻略易通》與《韻略匯通》音系比較—兼論明代官話的演變與傳承>, 國立中正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論文, 1999.5.
- 崔玲愛, <中國 古代 音韻學에서 본 韓國語 語源 問題>, 《東方學志》,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90.
- 詹梅伶, <廣西平南閩語之聲母保存上古音之痕迹?>, 《聲韻論叢》第5輯, 臺灣學生書局, 1996.9.
- 平山久雄, <重紐問題在日本>, 《聲韻論叢》第6輯, 臺灣學生書局, 2008.4.

<中文提要>

韩国与中国的文字交流历史悠久, 而现代韩国所用的汉字语音除了韩国特有的语音特征之外, 尚有包含汉语的古音、中古音以及近代音的各种信息。本论文主要从汉语的语音变迁的角度分析现代韩国汉字音的特色。本文分析出的现代韩国汉字音的特征如下:

1. 《广韵》精·清·从与见·溪·群母的不合并
2. 《广韵》晓·匣与心·邪母的未合并
3. 部分《广韵》见·溪·群与喉音(晓·匣·喻·为·影母的混用
4. 《广韵》帮·滂·并与非·敷·奉母未分化
5. 《广韵》端·透·定与知·彻·澄母的分化
6. 部分《广韵》知·彻·澄母的部分字反映“知古归定”
7. 部分《广韵》端·透·定母字的口盖音化
8. 《广韵》影·喻·为·疑·日母的零声母化
9. 部分《广韵》为母与匣母的混用
10. 《广韵》知·彻·澄/照·穿/庄·初·床/精·清·从母的合并
11. 《广韵》心·邪·神·审·禅·疏·部分床母字的合并

주제어 : 現代韓國 漢字音, 聲母, 韓·中語音比較, 韓國 漢字音 特徵